



보도자료

보도일시	2008. 9. 18(목) 배포시		
배포일시	2008. 9. 18(목) 10:30	담당부서	정책조정국 지역경제정책과
담당과장	김형수 (2150-4570)	담당자	김명선 사무관(2150-4571) 김미정 사무관(2150-4572)

제목: 2008년 제1차 「시·도 경제협의회」 개최

- 김동수 재정부 제1차관은 '08.9.18 10:30 정부 과천청사에서 「08년 제1차 시·도 경제협의회」를 개최
 - “최근 대내외 경제상황”에 대한 설명과 함께 하반기 경제운용 기조 및 주요 경제정책에 대한 지자체의 협조를 당부하고
 - 지난 9.10일 제2차 균형위에서 발표한 지역발전 전략인 “광역경제권 발전전략”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, 이에 대한 지자체의 의견과 건의사항을 청취
 - * 16개 시·도 부단체장, 지경부·교육부·행자부 및 균형위 기획단장 참석
- 김동수 차관은 모두발언을 통해
 - 우리경제는 세계적인 경기둔화와 고유가 충격, 최근 국제금융 시장 불안 등으로 ‘저성장·고물가·저고용’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
 - 국제유가가 하향 안정되고, 국제금융시장 불안도 선진국의 시장안정노력과 정책공조 등에 따라 점차 진정될 것으로 예상하면서

- 하반기 경제운영 기조는 물가·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내수기반 안정화와 녹색성장, 감세, 규제완화, R&D 확대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성장잠재력 확충에 중점을 두고 있는 바,
 - 지자체에서도 물가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적극적 협조와 특히, 사실에 근거없이 막연하게 경제 불안심리가 조장되지 않도록 적극적 역할을 당부

- 이어서, 국경없는 세계화시대는 ‘지역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’이라는 점을 설명
 - 지역발전 패러다임도 과거 획일적인 균형발전에서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토대로 차별화된 발전전략, 지역 주도의 발전체제로 전환해야 하고
 - 지자체도 행정구역 단위의 대립 구조에서 벗어나 지역간 동반·상생 발전을 도모하여 세계의 광역권에 맞서는 경쟁력 있는 지역을 창조해 나가야 함을 강조
- 부산·인천·강원 등 참가 지자체는 ‘규모의 경제를 도모하는 광역경제권 구축이 경쟁력있는 지역을 만든다’는 광역경제권 구상에 동의하며,
 - 광역경제권 구축을 위해 중앙과 지방간 적극적 교감 및 광역경제권과 관련한 현안과제들을 건의
- 재정부는 앞으로 광역경제권의 본격적 추진에 맞추어 「시도 경제협의회」를 광역경제권 실현을 위한 ‘지역 의견 수렴 창구’로 적극 활용할 계획

기획재정부 대변인